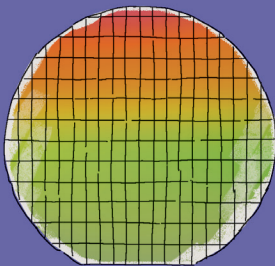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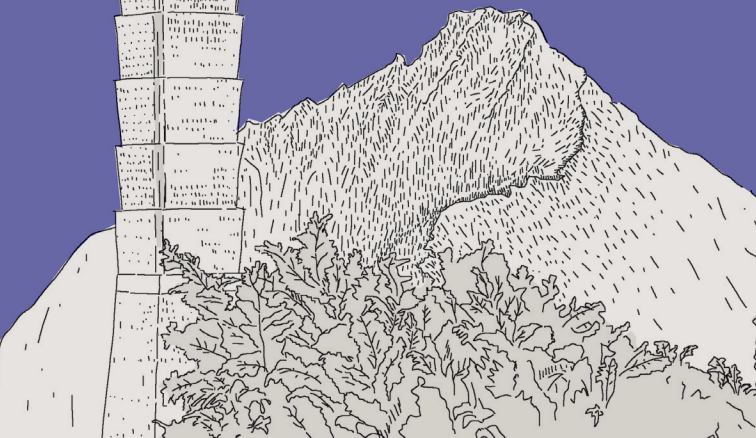


2025-2026

한눈에 보는 대만



중화민국 (대만) 외교부 발행





이 부분은 북마크로 활용하세요.



2025-2026 한눈에 보는 **대만**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발행

TAIWAN at a Glance

2025-2026

한눈에 보는 대만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발행

카이다거란대로 2, 중정구, 타이베이 100, 중화민국(대만)

<http://www.mofa.gov.tw>

발행인: 재닛 장

총편집인: 웬디 장

편집장: 류쿤하오

편집위원: 비 잔, 메그 장, 카이 제낙, 토리 제르베이스, 로라 황, 클레어 리어

레이아웃 및 그래픽 디자인: 후루위, 창천안, 진첸루, 린신제

사진: 천메이링, 진홍하오

유통: 타이완 파노라마 매거진

아이귀서로 2, 중정구, 타이베이 100, 중화민국(대만)

전화: (+886)-2-2397-0633

<http://www.taiwan-panorama.com>

초판, 2025년 12월

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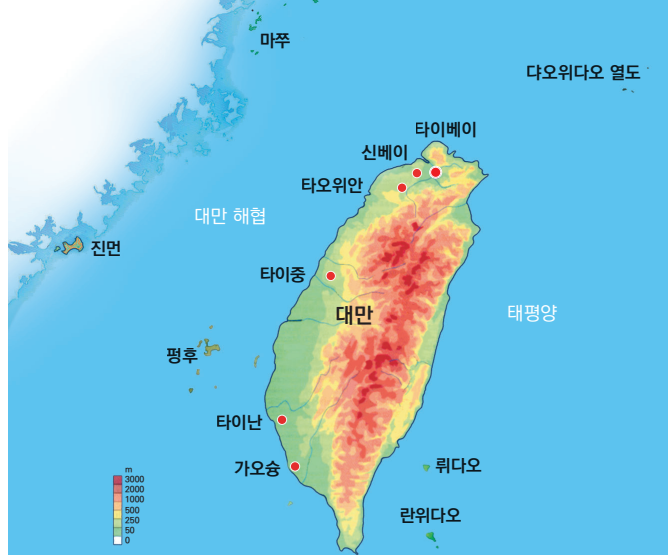
번역 통역번역사무소 글썬

편집 CASA LIBRO, 디자인 HaND, 인쇄 영문화사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본서의 전부 또는 일부 복제를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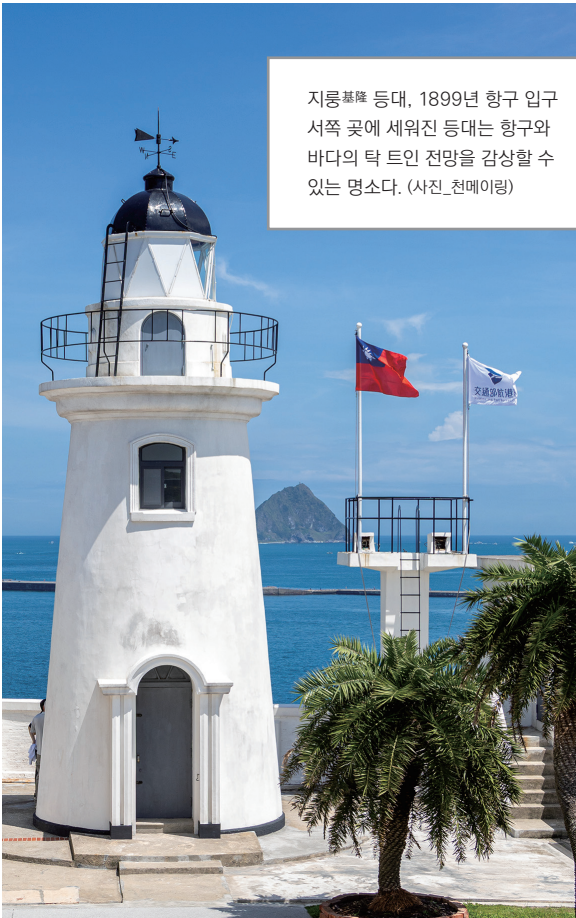
연락처: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전화: (+886)-2-3343-2712



개요

공식 국호	중화민국(대만)
국기	
국화	매화
국토 (대만 및 부속 도서)	36,197km ²
인구	2,340만(2024년 12월)
민족	한족 94.8% 이상,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 2.6%, 중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 신주민 2.6%
정치체제	다당제 민주주의
총통	라이칭더
수도	타이베이
직할시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통화	신 대만 달러(NT\$ 또는 TWD)
언어	표준 중국어(만다린어), 민남어(대만어), 하카어(객가어), 대만 제어
주요 종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일관도



Contents

차례

- 01 **자연환경** — 8
- 02 **민족** — 14
- 03 **역사** — 18
- 04 **정치** — 30
- 05 **외교** — 38
- 06 **양안관계** — 50
- 07 **경제** — 56
- 08 **과학기술** — 66
- 09 **교육** — 72
- 10 **문화** — 76
- 11 **대중매체** — 80
- 12 **관광** — 84

자연환경

01

○ 주요 정보

대만의 위산^{玉山}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대만 국토의 약 20퍼센트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Nature

중화민국(대만)은 서태평양의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자리하며, 관할 범위는 평후^{澎湖}·진먼^{金門}·마쭈^{馬祖} 등 열도와 여러 부속 도서까지 이른다. 대만 본섬과 부속 도서를 아우르는 총면적은 약 36,197제곱킬로미터로 네덜란드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인구 규모는 약 2,300만 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상위 25퍼센트에 속한다.

대만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품고 있다. 해발 3,000미터가 넘는 268개의 봉우리와 울창한 산록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섬에는 화산, 고원, 해안 평야, 분지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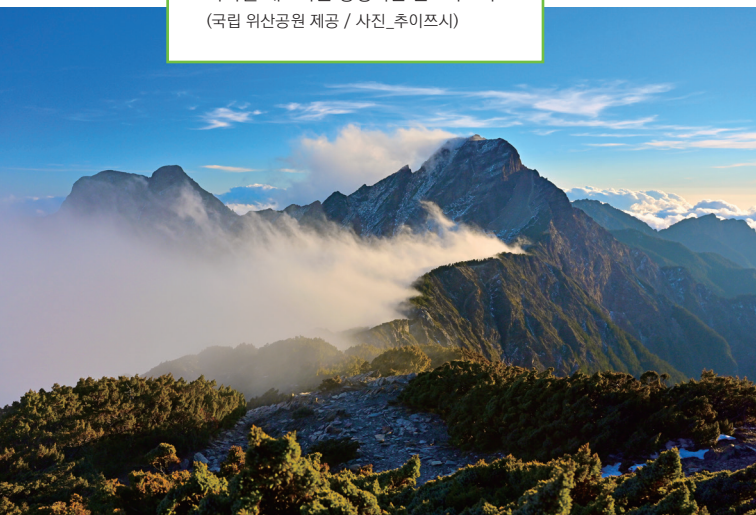
대만은 고유종 포르모사 사슴을 비롯한 다채로운 동식물의 보금자리다. (사진_전홍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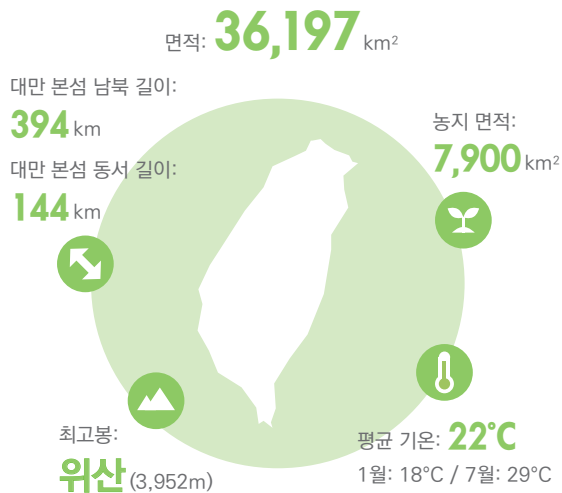
다양한 지형이 어우러져있다. 또한 대만 북동쪽에 위치한 다포위타이(釣魚臺) 열도와 남중국해의 동사군도·남사군도·서사군도·중사군도 또한 중화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아시아 대륙 동부 해안을 따라 흐르는 난류의 길목에 자리한 대만 본섬은 열대에서 온대에 이르는 다채로운 기후대를 품은 천혜의 섬이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업의 낙원이

대만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위산은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다.
(국립 위산공원 제공 / 사진_추이쯔시)



개요



되었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대만은 최고의 휴양지로도 손꼽힌다. 겨울에는 난터우(南投현)의 허환산(合歡山) 북봉에서 설경을 즐긴 뒤 불과 200킬로미터 떨어진 온화한 핑둥(屏東현)으로 이동해 섬 남단의 산호초 바다에서 스קי다이빙을 만끽할 수 있다.

부속 도서들은 저마다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평후 제도에는 주상절리 바위가 펼쳐져 있으며 뤼다오 綠島와 구이산다오 龜山島 연안에는 해양 온천이 자리한다.

동·식물

열대에서 온대에 걸친 다양한 기후와 다채로운 지형을 바탕으로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약 123종, 조류 758종, 파충류 117종, 양서류 43종, 나비 404종 및 어류 2,97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치식물 790종, 속씨식물 5,718종 및 겉씨식물 108종에 이르는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가공원 9개, 국가자연공원 1개, 특별 생태계 자연보호구역 22곳, 산림보호구역 6곳, 야생동물보호구역 21곳,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39곳이 보호구역에 포함됐다.

대만의 풍부한 생태환경을 대표하는 고유종에는 대만 산천어(포르모사 육룡연어)가 있다.

이 어종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져 담수와 해수를 오가는 길이 끊기면서 대만 중부 고산의 차가운 강 상류에 갇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어종 보호를 위해 쉘바 雪霸 국가공원의 다자계곡 大甲溪 상류가 대만 산천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국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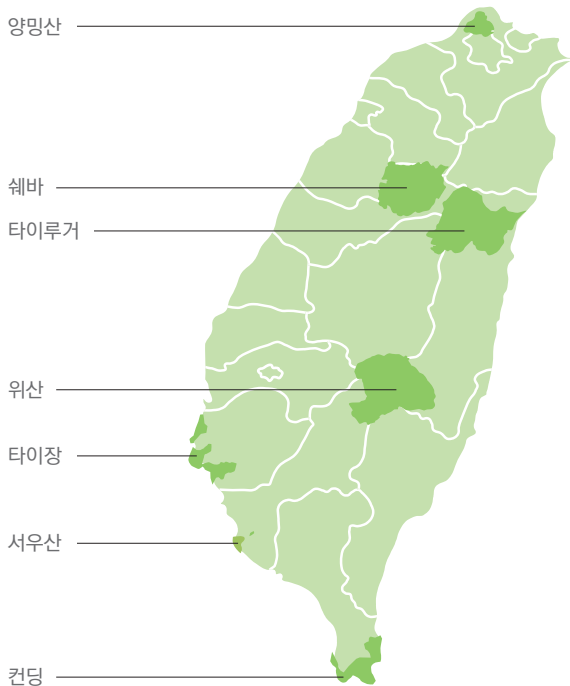
진먼



남평후



동사 환초



민족

02

○ 주요 정보

대만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16개 원주민 부족이 있다.

대만에 거주하는 신주민은 60만 명이 넘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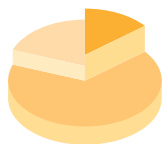
대만은 인구의 95% 이상이 한족 계통인 한족 중심 사회로 여겨지지만 그 문화적 뿌리는 훨씬 복합적이다. 17세기부터 이어진 중국인의 대만 이주 물결 속에는 서로 다른 관습과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하위 집단이 속해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대만에 터를 잡고 살아온 오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 부족과 함께 정착했고 각 부족은 저마다 고유한 전통과 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

화롄花蓮현 지역 원주민 예술단 알레피스Alefis가 2024년 국경일 경축 행사에서 전통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_진홍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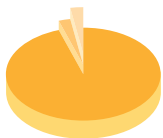
개요

인구: **23,400,220**명(2024년 12월)



인구 구성

- 0~17세: 14.28%
- 18~64세: 66.53%
- 65세 이상: 19.18%



민족

- 한족: 94.8%
- 원주민: 2.6%
- 신주민: 2.6%

출생률(2024년): **5.76**명(인구 1천 명당)

사망률(2024년): **8.63**명(인구 1천 명당)

기대수명(2023년): **80.23**세



남성:

76.94세



여성:

83.74세



및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 대만의 '신주민' 수는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16개 오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이 대만 인구의 2.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자, 이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만 원주민 방송국 출범 및 원주민 기본법 제정 등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 간 융합과 교류는 대만이 다양한 세계 문명을 공유한 방식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회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

역사

03

○ 주요 정보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착민들이 대만에 거점을 마련했다.
1940년대 말~1950년대 초, 중화민국 정부를 따라 약 120만 명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주했다.

History

중화민국(대만)은 1912년 중국에서 건국됐다. 당시 대만
은 1895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이 일본
에 할양하면서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다. 1945년 제2차 세
계 대전이 종식된 후 대만과 평후는 중화민국에 반환됐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내전 중이던 1949년 대만
으로 이전했다. 이후 중화민국이 대만 본섬 및 부속 도서에
대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만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중
화민국(대만)이 통치하는 대만 본섬 및 부속 도서에 대한 주
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17세기 네덜란드가 세운 안평고성
(질란디아 요새) 벽에는 철제 벽
고정장치인 앵커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사진_천메이량)



연혁

이어지는 연혁은 400여 년전부터 기록된 대만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땅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1500년대 이 시기 일부 중국 상인과 어부, 해적들이 대만을 찾았다. 또한 대만을 지나 항해하던 유럽 선원들이 이 섬을 일라 포르모사(Ilha Formosa, 즉 아름다운 섬)으로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1624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대만 남서부에 거점을 마련했다. 동인도 회사는 원주민의 곡물 재배 관행을 바꾸고 쌀과 설탕 농장에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1626 스페인 탐험가들이 대만 북부에 거점을 마련했으나 1642년 네덜란드에 의해 축출됐다.

1662 명 왕조(1368~1644)가 만주족에 의해 정복당하자 이를 피해 대만으로 이주한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인을 몰아내고 남부에 정권을 수립했다. 정성공은 네덜란드 인들에게 ‘국싱아*’로 불렸다.

*왕에게 성을 하사 받은 어르신이라는 뜻. 국성아(國姓爺)의 민남어식 발음

1683 청 왕조(1644~1912) 군대가 대만 서북부 해안 지역을 정복했다.

1885 대만이 청 제국의 행정구역인 성궤(省)로 선포됐다.

1985 제1차 청일 전쟁(1894~1895)에서 패배한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일본에 할양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이 1945년까지 대만을 통치하게 됐다.

1911~1912 중국의 혁명 세력이 청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1943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 총통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카이로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및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회담했고, 이후 “...포르모사(대만) 및 페스카도레스(펑후군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카이로 선언이 발표됐다.

1945 중화민국, 영국,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중화민국 정부 대표단은 대만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수락했다. 천이(陳儀) 행정장관은 일본의 대만 총독에게 서한을 보내 “중화민국의 행정장관으로서, 나는 (펑후군도를 포함한) 대만의 모든 법적 영토, 국민, 행정, 정치, 경제, 문화 시설 및 자산을 수복한다.”라고 선언했다.

1947

중화민국 헌법이 1월 1일 공포되어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해 3월부터 수개월간 중국에서 파병된 중화민국 군대가 2·28 사건으로 촉발된 대만 주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진압했다.

1948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간 내전이 중국에서 본격화되면서 공산당 진압을 위한 국가총동원기간 임시조치가 제정, 사실상 헌정이 중단되고 총통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시작된 백색테러 시대는 1991년 임시조항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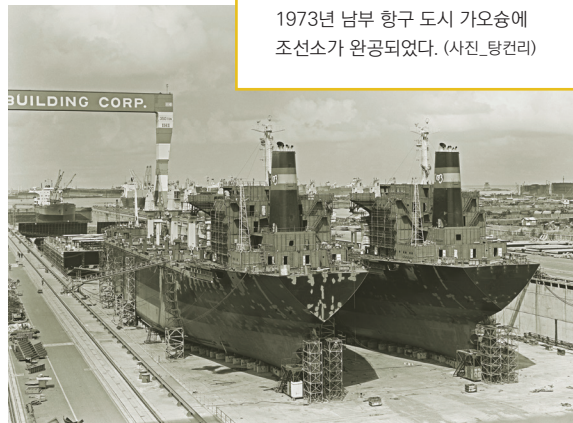
1949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했고, 120만 명이 그 뒤를 따라 대만으로 이주했다. 10월 25일 진먼 金門에서 구닝터우 전투가 발발했다. 진먼 북서부 해안에서 중화민국 국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1987년까지 시행됐다.

1952

1951년 유엔을 대표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중화민국과 일본은 타이베이 영빈관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일본은



1973년 남부 항구 도시 가오슝에 조선소가 완공되었다. (사진_탕컨리)

대만 및 평후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했다.

전쟁의 결과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중국과 일본 간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화됐다.

1954

워싱턴에서 중화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1958

8월 23일 진먼에서 중화민국 수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간 포격전이 발발하여 40일 이상 교전이 지속됐다.

1966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 최초의 수출가공지역이 조성됐다. 이는 대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1968	9년제 의무 교육제도가 시행됐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9년 이상 의무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9개국 미만에 불과했다.
1971	10월 25일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 2758호를 채택했다. 이에 중화민국은 유엔을 탈퇴했다.
1979	가오슝 사건으로 알려진 민주화 시위에서 가오슝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수감됐다. 이는 결국 1986년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창당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1987	1949년 선포된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신당 창당과 신문 출판에 대한 금지도 해제되면서 민주화가 가속화됐다. 양안 간 인적교류가 시작됐다.
1991	공산당 반란 진압을 위한 국가총동원기간 임시조치가 폐지됐다. 1991~1992년 입법위원 및 국민대회 대표를 포

	함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완전한 대표권을 부여했다. 1991~2005년 7차례 헌법이 개정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했다.
1992	홍콩에서 양안 대표단의 회담이 최초로 열렸고, 후속 소통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상호 인정과 이해에 도달했다.
1995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2·28사건 처리 및 보상법이 발효됐다.
1996	최초로 총통·부총통 직선제를 실시하여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와 러닝메이트 렌잔連戰이 54퍼센트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0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과 위슈롄呂秀蓮이 각각 총통과 부총통에 당선됐다. 이로써 50년이 넘는 국민당 통치가 종식되고 대만 역사상 최초로 정당 간 정권 이양이 이뤄졌다.
2002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3월 1일 군사정책 수립과 지휘 일원화 원칙에 따라 국방2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군의 국가화’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국방부 산하 기관이 신설됐다.

2003	입법원은 '공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국민이 지방 및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4	제3차 총통·부총통 직선 투표와 함께 제1차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천수이볜과 뤼슈렌이 재선됐다.
2005	입법원이 개헌안을 통과시켜 입법원 의석수를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감축했다. 또한 단일 선거구 1인 2표 병립식 혼합선거제를 도입했다.
2008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와 샤오완창蕭萬長이 각각 총통과 부총통에 당선되어 두 번째 정당 간 정권 이양이 이뤄졌다.
2009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1971년 유엔 탈퇴 이후 처음으로 유엔 활동에 참여했다.
2010	중국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양안 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제도화했다.
2011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했다.
2013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와는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었다.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이사회 의장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했다.
2014	2월 난징에서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과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전張志軍 주임이 회담을 가졌다. 양안관계를 담당하는 양국 총책임자급의 첫 공식 접촉이었다. 해바라기 운동 시위자들이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입법원을 점거했다. '9합 1선거'로 알려진 9개 부문 지방정부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130명이 당선됐다.
2015	11월 싱가포르에서 마잉주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서명하고 수락서를 기탁했다.
2016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과 천젠런陳建仁이 각각 총통과 부총통에 당선됐다. 민진당은 113석 중 68석을 확보해 첫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정부를 대표해 수 세기 동안 고통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원주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2017

16개 공인된 원주민 언어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 원주민족언어발전법을 제정했다.

201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최했다.

최초로 독자 개발한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인 포르모사 5호(FORMOSAT-5)를 발사했다.

2018

5월 31일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능의 '이행추진 정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1949~1991년 백색테러 기간에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이어 차이잉원 총통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2019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의 통과로, 대만은 성소수자(LGBTQ+) 혼인을 허용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2020

집권 민진당의 현직 차이잉원 총통과 러닝메이트 라이칭더賴清德가 2020년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진당은 과반 의석을 유지했다.

2022

국방부는 예비군 활용, 관련 제반 활동 및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민방위동원서를 설립했다.

8월 27일 디지털 거버넌스 및 인프라 발전 및 종합 기획 총괄을 위해 디지털발전부가 신설되었다.

2024

민진당의 라이칭더와 사오메이친蕭美琴이 각각 총통과 부총통에 당선됐다. 대만이 1996년 총통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집권당의 세 번 연속 정권 창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

'대만국제연대법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이 5월 5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유엔총회 결의안 2758호가 대만과 그 국민의 유엔 내 대표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대만 국민의 동의 없이 대만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신베이시립삼삼행박물관에서는 대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사진_팡자산)



정치

04

○ 주요 정보

중화민국(대만)의 총통 및 부총통은 4년마다 직선제로
선출된다. 입법위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해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Political System

1947년 1월 1일 공포된 중화민국 헌법은 계엄령이 해
제된 1987년 이후 비로소 민주적 통치와 법치주의
의 근간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후 시대 상황에 맞추어 1991년, 1992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및 2005년, 총 7차례에 걸쳐 중화민국 헌법
이 개정됐다.

개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1991년부터 정부의 관할권이

중화민국 공군 곡예비행팀 섀더타이거가
10월 10일 국경일(건국 113주년)을 기념해
총통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_진홍하오)



실질적인 통치 지역에만 미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총통과 입법위원은 오직 해당 통치 지역의 국민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2005년 6월 공포된 개정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의석 수는 225석에서 절반인 113석으로 줄었고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선거제하에서 선거구마다 단 1석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1표씩, 1인 2표를 행사한다. 현재 헌법 개정 비준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행사한다.

정부 구성

중앙정부는 총통직과 5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는 현재 6개 직할시, 13개 현縣, 현과 동급의 지방 자치단체인 3개 시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대만 전역의 시와 현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표가 4년마다 동시에 선출된다. 또한, 현정부가 관할하는 198개 시市·진鎮·향鄉을 비롯해 직할시 및 자치시에 속하는 6개 원주민 산악구를 포함한 총 170개 구가 있다.

직할시는 중앙정부 직속의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직할시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5원

행정원

정책 공포 및 시행

입법원

법률 검토 및 제정
정책 관련 청문회 주관
예산안 및 정부 운영 검토

고시원

공무원 제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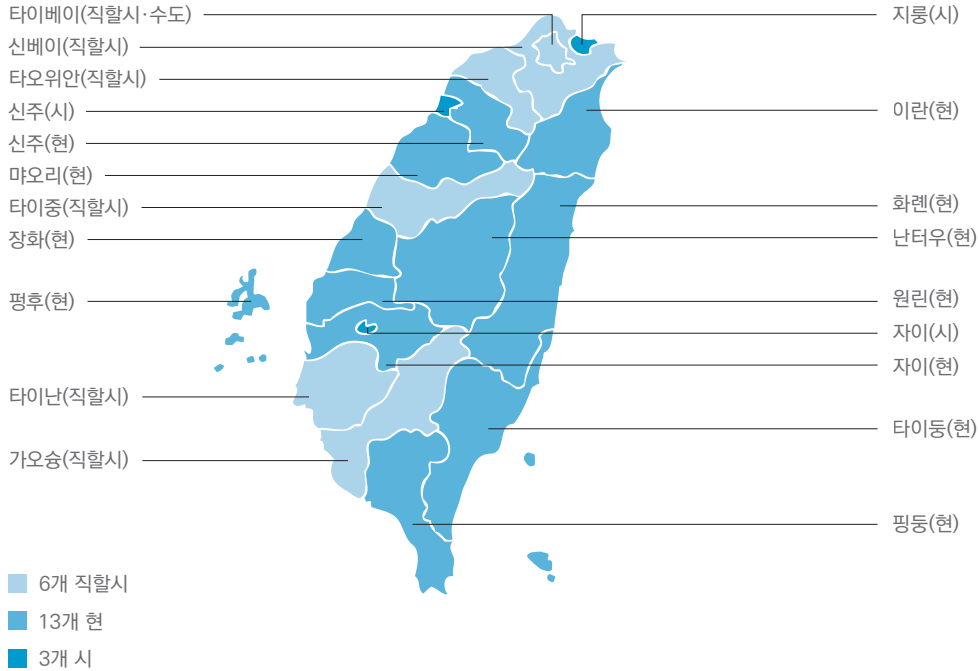
사법원

법원 제도 감독

감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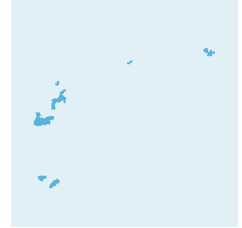
공무원 탄핵 및 감찰
정부 기관 감사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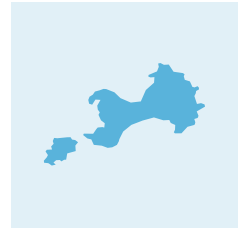


재정 지원 확대, 기관 추가 설립 및 공무원 추가 고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직할시에는 인구순으로 신베이(新北), 타이중(台中), 가오슝(高雄), 타이베이(台北), 타오위안(桃園), 타이난(台南)이 있다.

렌장(현)



진먼(현)



총통직 및 총리직

총통과 부총통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총통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

며,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행정원장)를 비롯하여 4원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총리는 행정원(내각)을 이끌고 입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또한, 행정원 산하 부처, 위원회, 기관의 장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원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각급 조직을 37개에서 30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원은 2012년 초 시작된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15개 부처, 9개 위원회, 3개 독립 기관 및 4개 기타 기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에 따라, 총통의 총리 임명 및 총리의 장관 임명에 입법원의 인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총통의 감찰원 및 고시원 위원, 사법원 법관 임명은 입법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입법위원장(입법원장)은 입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정당

총통직이 정부 운영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여당은 총통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한다. 국민당은 2000년과 2004년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50년 이상 총통직을 유지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재집권했다. 민진당은 2016년, 2020년, 2024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만의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세 번 연속 집권

한 정당이 됐다.

2024년 1월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113석 중 52석을 차지했고, 민진당은 51석을 확보했다. 민중당과 무소속은 각각 8석과 2석을 얻었다.

정치

05

○ 주요 정보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비자 면제, 도착비자 또는 전자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총 173개국에 이른다. 대만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중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Foreign Affairs

중화민국(대만)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자국 국방을 수호하고 외교를 수행한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화민국은 “친선 외교를 증진하고 조약 및 유엔헌장을 존중하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 정의를 제창하고 세계 평화 확보”를 목표로 한다. 대만 외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보전 및 장기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의 ‘가치 기반 외교’와 ‘글로벌 경제 강

라이칭더 총통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을 타이베이시 총통부에서 접견하고 있다.
(사진_총통부 제공)



국 대만'의 비전을 바탕으로 통합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 평화 및 번영의 3대 축을 기반으로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이익 창출과 성과 공유를 추구한다.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 하에서 대만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및 남아시아 6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만은 외교 동맹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인도·일본·뉴질랜드·대한민국·영국·미국·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들과 긴밀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국제적 참여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중미경제통합은행(CAEBI)을 포함하여 45개 정부 간 기구 및 그 산하 기구의 정회원국이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미통합체제(SICA) 등 30개 정부 간 기구 및 그 산하 기구에 옵서버 또는 기타 지위로 참여하고 있다. 대만의 건실한 자본 시장과 아시아에서의 중추적 위상을 고려하여 중미경제통합은

행은 2021년 7월 6일 중미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만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이외의 지역 통합에까지 대만의 참여가 확대됐다.

대만은 국가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실용적이고 전문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체계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정부 간 기구 및 메커니즘에 의미있게 참여함으로써 인류의 수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만은 수교 동맹국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

긴밀한 관계

2025년 5월 12일 기준, 총 173개국 및 지역이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또는 전자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17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대만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40개국 가운데 미국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긴밀한 양국 관계의 방증이다. 1979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만관계법은 공식적인 수교 관계의 부재 속에

서도 대만과 미국 간 협력의 강력한 기반이 되어왔다. 미국은 대만관계법 및 6개 보장에 따른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18년 대만여행법은 만장일치로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다. 직급과 무관하게 양국 정부 관계자의 방문을 장려하는 해당 법은 대만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지지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또한 2020년 미국 의회는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타이베이법)을 통과시킨 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대만의 전 세계 외교 동맹과 국제기구 활동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책무를 재확인하며 대만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에서 대만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왔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모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료들도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이 미 하원과 상



린자룽(林佳龍) 외교부 장관(왼쪽 가운데)이 5월 8일 텍사스 주도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주 하원의회를 방문했다. (사진_대만 외교부 제공)

원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위한 조항과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 간 협력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협력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33개국 가운데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 7개국이 대만과 공식 외교 관

계를 맺고 있다.

대만과 이들 중남미 및 카리브해 동맹국들은 공중보건, 농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녹색에너지, 관광,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호평을 받았다.

교황청은 대만과 오랜 수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 공식 수교 83주년을 맞이했다. 양측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도적 구호에 대한 공통된 책무를 다하고 있다. 대만은 앞으로도 교황청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 협력해 박애, 자선 및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대만은 유럽연합 및 기타 유럽 국가들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대만과 유럽연합은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녹색에너지, 신기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서 또한 연례 ‘대만-유럽연합 인권협의회’를 통해 성평등, 성소수자(LGBTQ+) 권리, 이주노동자 권리 등 공동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9~2024년 임기 동안, 유럽의회는 40개 이상의 결의안을 채택해 EU와 대만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대만

의 국제적 참여를 지지하며,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중국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은 일본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024년 1월 일본 노토반도 지진, 같은 해 4월 대만 화롄현 지진 등 어려운 시기를 서로 도우며 극복해왔다.

2022년 재개된 연례 경제통상회의 및 격년제 경제파트너십 위원회는 양국 간 긴밀한 통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양국은 2024년 8월 연례 해양회의를 개최해 과학 연구와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2015년 11월 대만과 필리핀은 양국 어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 분야 법집행 협력증진 협정’을 체결했다.

2016년 7월 19일 차이잉원 총통은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하여 4대 원칙과 5대 행동준칙을 발표했다. 4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에 대만이 참여해야 한다. 셋째, 관련국은 역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은 이전을 뒤로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만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협상을 통해 모든 관련국과 협력하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역내 자원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 5대 행동준칙에는 자국 어업권 보호, 다자간 협상 참여, 과학 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 및 구조 활동 수행, 해양법 전문가 양성이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남사군도의 타이핑다오를 남중국해의 인도적 지원과 물자 공급을 위한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내각의 해양위원회 산하 해양경비대는 2000년 동사군도와 타이핑다오 주둔을 담당하게 된 이래로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국내외에서 국민을 지원해왔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해양경비대는 주변국의 상응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적 0.51제곱킬로미터의 타이핑다오는 사람이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타이핑다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 정의한 도서의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협약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은 타이핑다오의 영해, 접속수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

상생 협력

대만은 국제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질병 관리에 전념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테러,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대만은 정부 간 교류, 기업 투자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동맹국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며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 출범한 ‘글로벌 협력과 대응 훈련을 위한 프레임 워크GCTF’는 대만,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들이 전 세계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GCTF는 법치주의 확립,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거버넌스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포용적 번영의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이라는 5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세계적 역량을 강화해왔다. GCTF는 참여국 수와 의제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협력의 중요한 무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린자룽 외교부장이 4월 아프리카의 동맹국
에스와티니 수도 음바바네에서 음스와티 3세
국왕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_대만 외교부 제공)

대만이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대만 모델’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은 80개 이상의 국가에 마스크 및 기타 의료용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명 구호 및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강화로 널리 찬사를 받은 대만 모델은 2021년 자국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속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국내외에서 이어진 백신 기부의 선순환과 사회 전반의 신속한 대응이 더해져 대만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 공공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변화, 경제 자유화 및 민주주의 혁신을 통해 대만에는 민간 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그에 따라 비정부기구(NGO)들이 활성화됐다. 오늘날 대만 시민사회는 대만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보장하고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NGO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대만 정부는 대만의 NGO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NGO의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과 각 기구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 NGO의 활발한 국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번영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안관계

06

○ 주요 정보

라이칭더 총통의 '평화4대지주행동방안'의 핵심 요소

- 자주 국방 강화
- 경제 안보 강화
- 양안 리더십의 안정화 및 원칙화
- 가치 기반 외교

Cross-strait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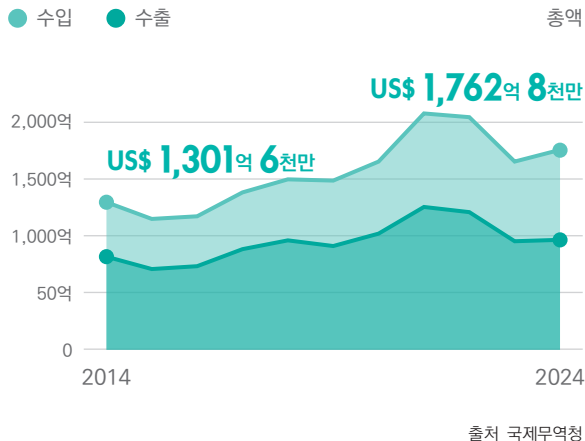
1949년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본섬을 비롯해 평후군도·진먼다오·마쭈 열도 및 여러 부속 도서를 관할해 왔고, 중국은 중국 당국의 관할하에 있어 왔다. 1980년대 후반 대만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의 민간 교류에 대한 여러 제한이 해제됐다. 오늘날 대만은 중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1991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승인된 대중국 투자는 45,833건으로, 총 2,100억 2백만 달러에 달한다. 2024년 양안 무역 규모는 1,76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타이베이에 위치한 양안 간 기술 및 사무를 관리하는 해협교류기금회 (사진: 진흥하오)



2008년 6월, 대만의 준정부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간의 정례회담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2015년 8월까지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11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어 23건의 공식 협정이 체결됐으며, 그중 21건이 발효됐고 2건의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성과는 2010년 6월에 체결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이는 양안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양안 무역 현황



평화와 안정

대만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양안관계가 중요하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4년 5월 20일 취임사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상호 이익 및 상호 번영이 양안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대만의 확고한 핵심 가치이며, 대만이 추구하는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룬 번영이다.

대만 정부는 굴복하거나 도발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안관계를 현상태로 유지하고,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류 재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은 양안 교류에 정치적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대만에 정치적 탄압 및 군사적 강압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다. 2019년 1월 2일 중국은 대만에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 도입을 제안하여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이라는 현상 유지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으며, 2023년에는 차이잉원 전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

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이 성사됐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정치·간섭과 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적 강압과 회색지대 전술을 동원해 더욱 강하게 대만을 압박했다.

대만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하여 ‘양안인민관계조례 兩岸人民關係條例’를 수차례 개정했다. 현재까지 가결된 개정안은 양안 간 정치 협정 감독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과 미승인 중국 투자에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조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정부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람의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의 제3자 투자를 통한 대만에서의 미승인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대만 정부는 라이칭더 총통이 주창한 양안 정책의 원칙 및 방향에 따라 양안관계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양안 교류 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안보 방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긍정적인 양안관계를 촉진하고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관된 접근 방식

앞으로도 대만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 ‘양안인민관계조례’ 및 국민의 뜻에 따라 양안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다.

대만 정부는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만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와 교류함으로써 대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도 대만은 차이잉원 전 총통의 ‘4대 확고한 약속’에 기반한 ‘4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이의 핵심 내용은 국가주권 수호,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평등과 존엄의 원칙 하에 양안 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대화와 교류 지속, 민주주의와 생활의 자유 수호이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평화4대지주행동방안(和平四大支柱行動方案)’과 17대 전략을 통해 주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과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 미국, 일본 및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과의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

07

○ 주요 정보

대만은 2024년 기준 세계 16위의 상품 수출국이다.
신남향정책에 따라 대만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남아시아 6개국과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conomy

대만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
자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상품 공급국으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만은 상품 수출과 수입에
있어 각각 세계 16위와 18위를 차지했다. 2024년 12월 기
준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
금^{IMF}에 따르면 대만의 2025년 4월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은 34,430달러를 기록했다. 명목 GDP 기준으로 대만은
폴란드 및 스위스에 거의 근접했으며, 구매력 평가 지수^{PPP}

생명공학 산업은 대만의
'5+2 혁신산업 계획'의
핵심 육성 분야 중 하나이다.
(사진_진홍하오)



로 환산한 1인당 GDP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무역 성장

2024년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로 인해 세계 무역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대만 경제는 인공지능^{AI}, 고성능 컴퓨팅^{HPC} 등 혁신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 결과 2024년 대만의 총 교역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미화 8,6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9.8%, 12.2% 늘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나 경영환경리스크인텔리전스^{BERI}에서 실시하는 연례 세계 경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은 장기 성장 및 기술 개발 부문에서 해마다 높은 순위를 기록해 왔으며, 2025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64~65쪽, ‘글로벌 조사 순위’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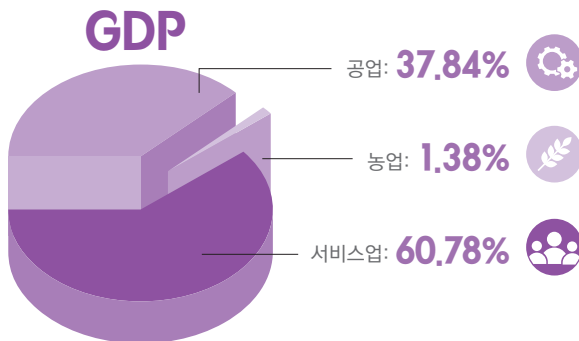
2013년 7월 대만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최초로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에 싱가포르와 맺은 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의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첫 번째 협정이다. 두 협정의 내용은 WTO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 블록에 대한 대만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GDP 개요(2024년)

명목: **US\$ 7,97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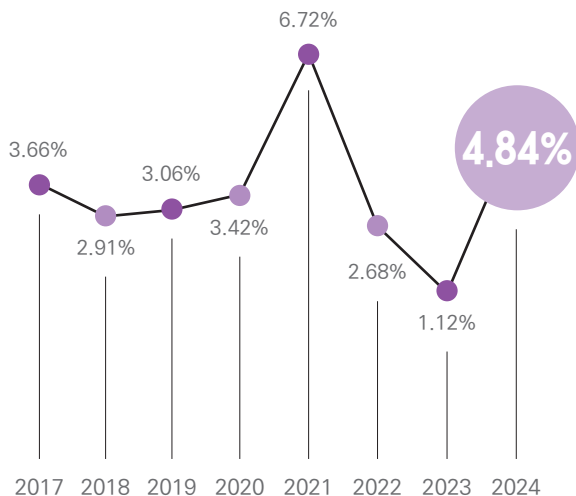
1인당(명목): **US\$ 34,040**

1인당 PPP(IMF 추정): **US\$ 76,860**



대만은 2017년에 파라과이, 2018년에 에스와티니, 2019년에 마셜제도, 2020년에 벨리즈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경제, 투자, 기술 및 무역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했다.

경제 성장률



출처_행정원 주계총처

대만과 미국은 2023년 6월 ‘21세기 무역에 관한 대만-미국 이니셔티브Taiwan-U.S.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에 따른 첫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한 ‘대만-미국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화Taiwan-U.S. Economic Prosperity Partnership Dialogue’와 ‘대만-미국 기술무역투자 협력Taiwan-U.S. Technology Trade and Investment Collaboration’을 통해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전환을

강화했다. 2024년 2월 22일에는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대만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간 민간 부문 투자 기회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발전 전략

2016년 대만 정부는 산업 구조의 혁신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산업 개발 정책인 ‘5+2산업혁신계획5+2產業創新計畫’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차세대 스마트 기계, 아시아 실리콘 밸리, 바이오 및 제약, 녹색에너지, 국방, 신농업, 순환 경제와 같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에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2019년 출범한 ‘대만투자를 위한 3대 주요 방안投資臺灣三大方案’과 연계하여 6대 핵심 전략 산업이 선정됐다. 정보 및 디지털, 사이버 보안, 정밀 의료, 국방 및 전략, 녹색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전략 비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대만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증진하고, 부문별 혁신과 진보를 촉진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또한 향후 30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기반시설개발계획前瞻基礎建設計畫’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철도 개발, 디지털 기반

무역 및 투자 개요(2024년)

무역 총액: **US\$ 8,694** 억



수출: **US\$ 4,750**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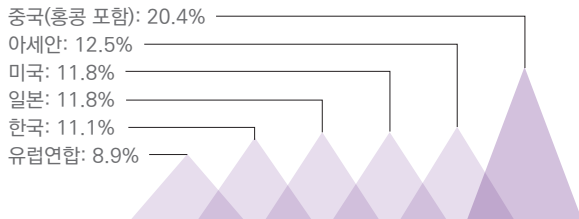
수입: **US\$ 3,944** 억

무역 수지: US\$ 806억 흑자

주요 수출국(총 수출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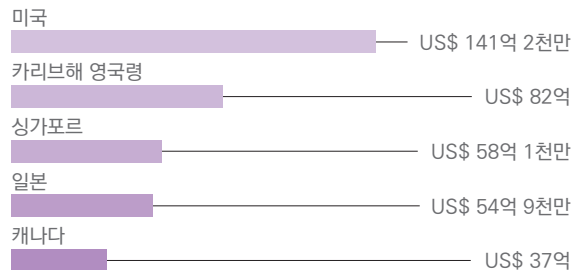
주요 수입국(총 수입 대비 비율)



외환 보유액: **US\$ 5,766** 억 7천만 (2024년 12월 기준)

등록된 해외투자 유출: **US\$ 449** 억 3천만

상위 5대 투자처



등록된 해외투자 유입: **US\$ 78** 억

상위 5대 투자원



글로벌 조사 순위

조사 주제(발행일)	순위	조사 대상국	조사 기관
세계경쟁력연감(2025년 6월)	6	69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경제자유지수(2025년 3월)	4	184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시설, 수생 환경, 식품 안전, 녹색에너지, 도시 및 농촌 개발, 출산율 증대 및 보육 시설 확충, 인재 양성 및 고용 등 8개 부문을 다룬다.

대만 정부는 혁신 산업 추진과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반영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은 산업 구조 조정, 국가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 성장 전략을 전면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녹색에너지 자원의 사용 증진을 목표로 한다.

2024년 대만 정부는 포용적 성장, 스마트 기술 및 지속 가능 전략을 위해, 반도체·AI·군사·안보 및 정찰, 차세대 통신 기술을 포함한 ‘5대신뢰산업五大信賴產業’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

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생성형 AI의 등장과 디지털 및 탄소 중립 산업 전환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여 대만 정부는 기존의 ‘아시아실리콘밸리계획亞洲·矽谷推動方案’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실리콘밸리개발계획3.0亞洲·矽谷3.0推動方案’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및 탄소 중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5G 및 위성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향후 4년간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침도 담고 있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 도전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임금 상승과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08

○ 주요 정보

대만은 세계적인 ICT 제품 생산국이다. 2025년 6월 IMD가 발간한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대만은 69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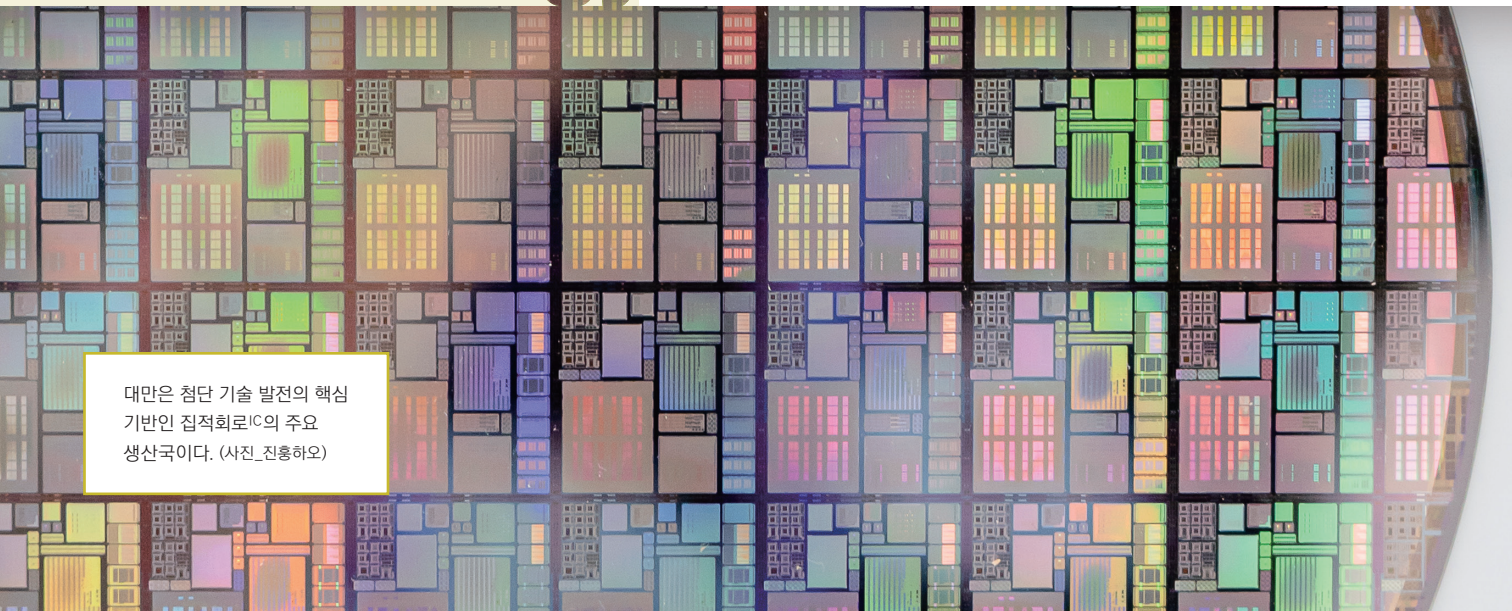
Science and Technology

‘**혁신**’ 신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만’을 목표로 하는 ‘2030스마트대만^{2030智慧國家}’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인구 구성에 부합하는 혁신 기술을 일상생활에 도입하고, 친환경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만큼 위원회는 스타트업 양성, 국내 3대 과학단지 육성 및 학술 연구 지원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을 제고하고 산업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

대만은 첨단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인 집적회로(IC)의 주요 생산국이다. (사진: 진홍하오)



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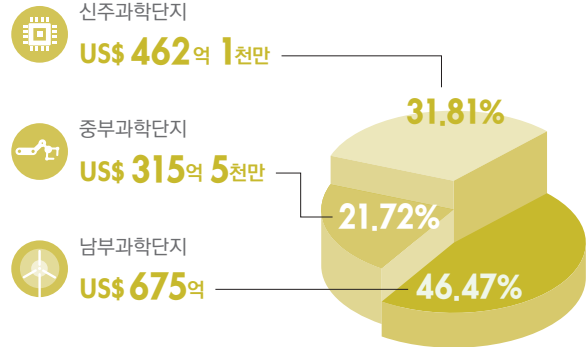
대만 첨단 기술 기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응용과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산업기술연구원, 국가실험연구원, 정보산업 연구소는 연구 활동, 민간 R&D 지원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대만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혁신 지원

기술 혁신 분야에서 산업기술연구원의 전문성은 뛰어난 수상 경력으로 입증된다. 지난 17년 동안 산업기술연구원은 권위 있는 R&D 100 어워드 R&D 100 Awards에서 총 66개의 상을 수상했고, 에디슨 어워드 Edison Awards에서는 2017년부터 총 23개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클래리베이트 Clarivate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Top 100 Global Innovator에 2015년부터 총 9차례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기업 육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TSMC 및 UMC 등은 맞춤형 집적회로 IC 제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국가실험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만 3대 과학단지 입주 기업 매출(2024년)



출처_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7개의 국가 연구소를 통합해 출범했다. 국가실험연구원은 R&D 플랫폼 구축, 학술 연구 지원, 첨단 과학기술 진흥, 첨단 기술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국가실험연구원은 정부 정책과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실험연구원은 앞으로도 기존 과학 연구 분야의 토대 위에 다학문적 통합과 최신 응용기술 발전에 힘쓸 것이다. 환경의 영향과 사회 변화에 따라 수립된 이러한 계획으로는 AI, 빅데이터, 무

글로벌 조사 순위

조사 주제(발행일)	순위(부문)	조사 대상국	조사 기관
세계경쟁력연감(2025년 6월)	10 (기술 기반 시설)	69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5 (과학 기반 시설)		
2019년 국가경쟁력보고서 (2019년 10월)	4 (혁신 역량)	141	세계경제포럼WEF

인 시스템, 탄소중립 및 바이오 기술이 있다. 해당 기관은 R&D 플랫폼 구축과 신기술 개발에 전념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정보산업연구소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통해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소는 혁신적인 ICT 제품과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R&D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ICT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해당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50만 명이 넘는다.

대만의 기술 생태계는 아시아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기술 개발자,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자, 현지 벤처캐피털들은 협력적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의 야심찬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역동적인 스타트업 허브인 대만테크아레나TTA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타이베이와 타이난에 거점을 둔 TTA는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 및 기업을 연계해 역동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TA는 대만 기술 스타트업을 대변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09

○ 주요 정보

대만에는 140개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이 있다.
'이중언어 2030' 정책은 중국어(만다린)와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만에서 교육은 정책 입안 시 중요한 요소로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고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5세 이상 대만 인구 가운데 50.6퍼센트가 전문 대학이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동안 7.9퍼센트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4년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 기본교육제도로 개편했다. 대만 학생들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와 같은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생물학·화학·지구과학·수학·정보과학

어린이들이 공립 어린이집에서 조약돌 위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 중이다. (사진:전홍하오)



Education

및 물리학 분야에서 매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해 대만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자국의 다문화 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대만 정부는 12년제 기본교육제도의 필수 교육과정에 민남어, 하카어, 대만 제어 및 신주민 언어 수업을 편성하여 해당 언어의 전승, 부흥 및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인재 및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는 ‘2030이중언어정책 2030雙語政策’을 채택했다.

2025년 9월 공식 출범한 체육부는 체육 교육의 발전, 스포츠 관련 정책 및 활동 총괄, 국민 참여 확대,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외교의 진흥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학금 제도

외국인 유학생은 정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장학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대만 대사관 및 대표부에 문의하거나, 대만 교육부 웹사이트(<https://english.moe.gov.tw/lp-24-1.html>)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요

문해율(15세 이상): **99.3%**  (2024년)

교육, 과학, 문화 부문 지출: 중앙정부 예산의 **19.3%**  (2025년)

고등교육기관: **140** 개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128개, 전문대학 12개)

고등교육기관 등록 학생:

총계: **107** 만 명 
석사 과정: **177,888** 명
박사 과정: **28,816** 명
(2024년)

교육부는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어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화어문장학금 華語文獎學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전국 65개 대학 산하 중국어 학습 센터에서 중국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대만 전역의 대학 부설 언어학습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만 교육부 웹사이트, Study in Taiwan(www.studyintaiwan.org), 대만화어교육자원센터 웹사이트(https://limit.edu.tw/en/school_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

10

○ 주요 정보

대만은 '만다린 팝' 산업의 중심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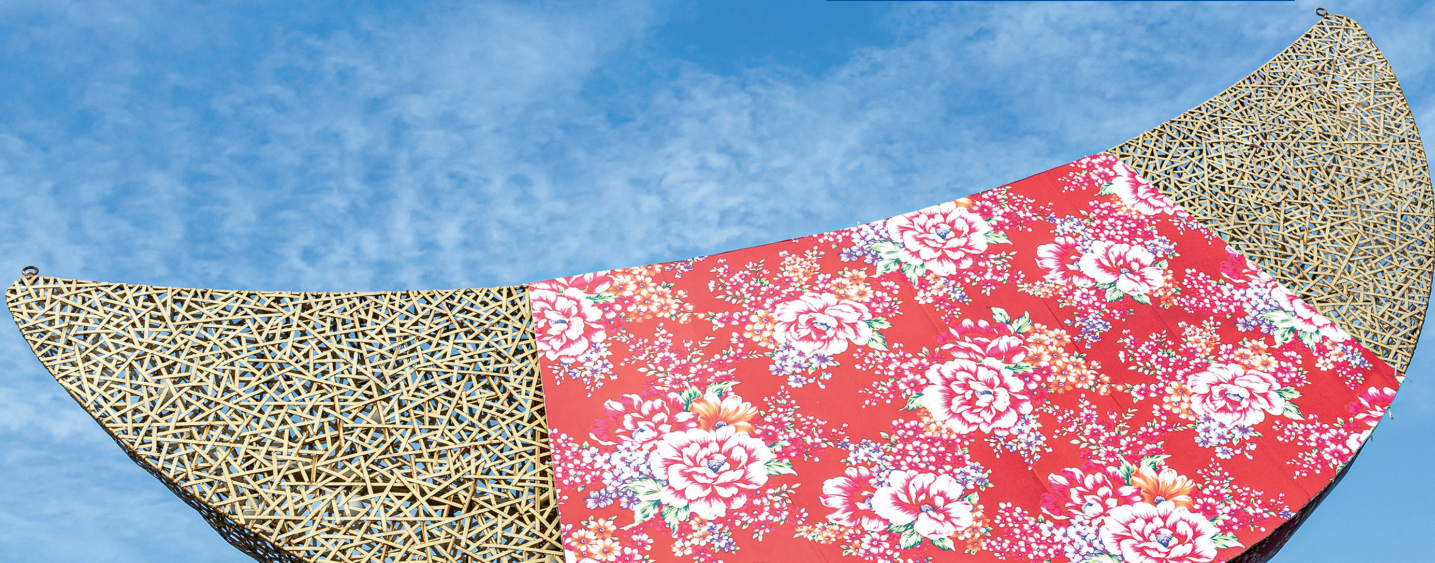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대 중국 유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Culture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대만의 매력적인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만의 역사 및 문화적 다양성을 선보이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만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대만선사문화박물관, 국립대만역사박물관, 국립대만문학박물관, 국립대만미술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대만 전역에 설립됐다. 또한 국립희극원 및 국립음악청, 국립타이중오페라극장, 국립가오슝아트센터(웨이우잉), 대만

이러한 국립전통예술센터에 설치된 루핑청 작가의 작품. 전통신앙에서 집괘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초승달 모양의 목제 도구인 '자오베이(窰杯)'를 형상화했으며, 대나무를 엮고 하카(客家)족의 전통 문양의 천으로 감쌌다. (사진: 천메이링)



회극센터 등 다수의 공연장도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대만은 대만국제예술제와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만의 전통 건축물은 사찰, 관저 등 국가의 기념비적인 유적과 더불어 커뮤니티 센터, 카페, 상점 등 공용공간으로 재단장한 유서 깊은 건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만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중국 전통 예술, 공예 및 풍습을 잘 전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여전히 정체(正體) 한자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서예 경연 대회는 꾸준히 인기 있는 행사다.

대만에서는 사찰 행사와 문학에서부터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 유교 및 도교의 전통 교리를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방문객은 하카어 및 민남어를 사용하는 민족과 16개 원주민의 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대만의 풍부한 문화유산은 해외 대표부의 문화 부서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대만의 대도시에는 연중 24시간 즐길 거리가 끊이지 않으며, 유수의 댄스 공연단이나 음악 관련 문화 활동이 활발히 펼쳐진다. 이는 대만이 ‘만다린 팝’, 즉 중국어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중심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개관한 타이베이 뮤직 센터와 가오슝 뮤직 센터는 주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만의 TV와 영



전통 예술 장인이 등불 작품에 마지막 손길을 더하고 있다. (사진_천메이링)

화 부문은 최근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디자이너 매장이거나 시장, 전시회 등은 대만의 문화 및 창조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준다.

문학예술과 민속 축제부터 활기 넘치는 야시장까지, 대만의 전통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으며, 과거의 숨결이 현재를 살찌워 한층 더 깊어지며 풍성해지고 있다.

대중매체

11

○ 주요 정보

대만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대만 대중매체의 다양성은 다수의 대중매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드러난다. 대만 언론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가 2025년 5월 2일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대만은 세계 24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180개의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대만은 한국, 일본, 홍콩, 중국을 앞섰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22개국 84개 언론기관 소속 언론인 176명이 대만에서 활동 중이다.

라이칭더 총통(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두 개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_총통부 제공)

Media



개요



라디오
방송국

186개



지상파
방송국

5개



위성방송
사업자

133개
(296개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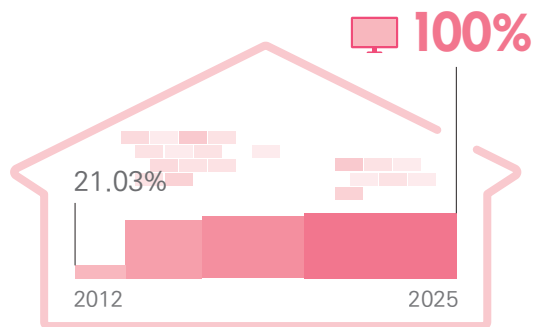
케이블 TV
사업자

63개

(2025년 1분기 통계)

출처_통신방송위원회

디지털 TV 가구 보급률



출처_통신방송위원회



대만의 독립 서점들은 미디어 산업에 활기를 더하는 또 하나의 문화적 중심축이다. (사진_진홍하오)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디지털 배포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답게 대만의 전자 출판 산업은 해당 산업은 물론 일반 도서 출판 산업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36,174종의 신간이 발행됐다.

케이블 TV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청자의 시각적 경험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디지털화로 케이블 TV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관광

12

○ 주요 정보

62개국 이상의 국민이 14일, 30일 또는 90일 동안
무비자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다.

대만은 24시간 다국어로 제공되는 여행 정보 핫라인
(0800-011-765)을 운영 중이다.

Visiting Taiwan

독 특하게 융합된 문화, 경이로운 자연경관, 다채로운 먹거리, 역동적인 도시의 삶, 발달된 관광 서비스 산업을 보유한 대만은 다양한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다.

대만은 약 1,100킬로미터 길이의 일반철도TRA 외에도 서부 해안을 따라 350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철도THSR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속철을 이용하면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단 94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 두 도시와 더불어 북부

신주新竹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노선이 하나의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상호 연계
되고 있다. (사진: 진홍하오)



대만은 오랜 차궂 재배 전통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_지미 린)



와 중부 대도시인 타오위안과 타이중도 최첨단 고속대중교통MRT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제 무역박람회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는 전체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박람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주요 전시장소로는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전시장, 난강 전시장, 남부의 가오슝 전람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www.taiwantradeshows.com.t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 안내 정보

대만 정부는 방문객에게 대만 여행, 생활 및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핫라인	언어
대만 관광청 www.taiwan.net.tw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여행 정보 핫라인 0800-011-765 (24시간)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민국 www.immigration.gov.tw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외국인을 위한 정보 안내 핫라인 국내: 1990 해외: 886-800-001990	24시간-영어, 일본어, 중국어 평일 9:00~17:00-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주요 관광명소

북부

국립고궁박물관: www.npm.gov.tw

타이베이 101: www.taipei-101.com.tw

신베이시립잉거도자기박물관:

www.ceramics.ntpc.gov.tw

국립중정기념당: www.cksmh.gov.tw

룡산사: www.lungshan.org.tw

쉐바국가공원: www.spnp.gov.tw

양밍산국가공원: www.ymsnp.gov.tw

둥베이자오·이란 해안국가풍경구:

www.necoast-nsa.gov.tw

북해안·관인산 국가풍경구: www.northguan-nsa.gov.tw



중부

르웨탄국가풍경구:

www.sunmoonlake.gov.tw

구족문화촌: www.nine.com.tw

삼산국가풍경구: www.trimt-nsa.gov.tw

국립대만공예연구발전센터: www.ntcri.gov.tw

루강진마을: www.lukang.gov.tw

국립자연과학박물관: www.nmns.edu.tw

위산국가공원: www.ysnp.gov.tw



동부

타이루거국가공원: www.taroko.gov.tw

대만삼림유락구: recreation.forest.gov.tw

동부해안국가풍경구: www.eastcoast-nsa.gov.tw

화둥중국국가풍경구: www.erv-nsa.gov.tw



남부

타이장국가공원: www.tjnp.gov.tw

컨딩국가공원: www.ktnp.gov.tw

아리산국가풍경구: www.ali-nsa.net

시라야국가풍경구: www.siraya-nsa.gov.tw

다평만국가풍경구: www.dbnsa.gov.tw

마오린국가풍경구: www.maolin-nsa.gov.tw

원자난해안국가풍경구:

www.swcoast-nsa.travel.gov.tw/en

서우산국가자연공원: www.nnp.gov.tw



부속 도서

진먼국가공원: www.kmnp.gov.tw

남평후해양국가공원: www.marine.gov.tw

마쭈국가풍경구: www.matsu-nsa.gov.tw

뤄다오 및 랴위다오:

tour.taitung.gov.tw/en/discover/offshore-islands



주요 축제 및 행사

월별	축제와 행사*
1월	제야축제
2월	대만등불축제**
3월	대만국제난전
4월	타이중마쭈국제관광문화제(종교 행사) 다평만해양축제 타이베이패션위크
5월	평후국제해상불꽃축제
6월	대만태양광축제 동해안대지예술제 및 달빛·바다뮤직페스티벌
7월	대만국제열기구축제
8월	대만미식전
9월	대만자전거축제
10월	르웨탄자전거·음악·불꽃축제
11월	대만파시와리페스티벌 평후바닷길마라톤
12월	대만온천·미식축제 신베이크리스마스랜드

대만 중부 장화현彰化縣 루강진鹿港鎮 에 위치한 천후궁. 바다의 여신 마쭈를 모신다. (사진_진홍하오)



*자세한 내용은 대만 관광청 웹사이트(<https://eng.taiwan.net.tw>) 참조

**대만등불축제는 매년 다른 도시나 현에서 개최되며, 2026년에는 자이푹嘉義에서 개최 예정

통화

신 대만 달러(NT\$ 또는 TWD)

환율: US\$ 1당 NT\$ 30(2025년 6월)



시간대

전국 동일 시간대, UTC+8시간(계절 조정 없음)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

주요 신용카드는 널리 통용되며, 여행자 수표는

외환 취급 은행, 호텔, 관광 관련 상점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팁 문화

대만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관례는 아니지만,

호텔과 레스토랑의 객실 요금이나 식사에

10퍼센트의 봉사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전압

AC 110V/60Hz



비자 정보

외교부 영사국

전화: (+886)-2-2343-2888

웹사이트: www.boca.gov.tw



관세 규정

재정부 관무서

전화: (+886)-2-2550-5500 내선 2116

웹사이트: web.customs.gov.tw

